



오주석씨

솔/A5신/228면/9500원

## 옛 사람의 마음으로 읽는 옛 그림의 정신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쓴 오주석씨

옛 그림을 '읽는' 일은 시공을 달리하는 두 인격체가 마주앉아 '이심전심'의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황홀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린이의 내면세계와 당대의 정황, 그리고 시서화 일체로 구현된 전통미학의 문법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미술평론가 오주석씨는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에서 옛 사람의 마음으로 그림을 읽을 것을 권한다.

옛 사람들은 그림 감상을 일러 '간화'(看畵), 즉 '그림을 본다'는 말보다 '독화'(讀畵), 곧 '그림을 읽는다'는 말을 즐겨 썼다. '본다'는 것은 겉에 드러난 조형미를 감상한다는 뜻이 강하다. 반면 '읽는다'는 것은 그린이의 마음결을 찬찬히 되새겨보는 일이다. 시공을 달리하는 두 인격체가 마주앉아 '이심전심'의 황홀경에 빠져드는 일, 그것이 옛 그림을 읽는 일이다.

### 옛 그림, 한 인간의 혼 담긴 생명체

하지만 누구나 이런 황홀경을 누릴 수는 없는 법. 그린이의 내면세계와 당대의 정황, 그리고 시서화(詩書畵) 일체로 구현된 전통미학의 문법에 대한 예비지식이 옛 그림의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오주석씨(44, 간송미술관 연구위원)가 펴낸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솔)은 조출함과 진솔함, 그리고 따뜻함이 담겨 있는 옛 그림을 '추체함'하게 한다.

"옛 그림은 한 인간의 혼이 담긴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을 오래 바라보거나 찬찬히 들여다볼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린이의 손동작을 느끼고 나아가 그 마음자리까지 가늠해볼 수 있을 때, 그린이와 하나되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죠."

오씨가 '즐겁게 읽어준' 옛 그림들은 모두 열

한점, 김명국의 <달마상>부터 안견의 <몽유도원도>, 김정희의 <세한도>를 거쳐 정선의 <인왕제색도>까지 한국 문인화의 압권들이다. 이런 명작들을 추상의 언어로 그려낸다는 것은 여간한 '공력'이 필요한 게 아닐 것이다. 오씨는 인식의 한 형태로서 상상력의 힘을 강조한다.

"흔히 걸작은 한획의 붓질도 덧덜 수 없고 또 한획의 붓질도 덜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예컨대, 훌륭한 대나무 그림에는 계절·기후·습도뿐만 아니라 미세한 바람의 강도까지 표현됩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자신에 대해 성실했던 울곧은 선비상을 만나고, 김홍도의 <주상관매도>에서 여유롭고 유장한 평시조 가락을 듣기도 한다.

이 책에는 초심자들을 위한 옛 그림 감상 요령이 실려 있다. '옛 그림의 색채' '옛 그림의 여백' '옛 그림에 깃든 마음' 등의 항목이 그것이다. 다음 단계로 오씨가 독자들에게 일러준 '옛 그림 보는 법'은 다음과 같다.

좋은 작품을 무조건 많이 자주 볼 것, 작품 내용을 의식하면서 자세히 뜯어볼 것, 오래 두고 보면서 작품의 뉘뉘미를 생각할 것, 옛 그림 속에서 지나간 역사를 되새겨볼 것.

###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이 독법은 두가지 원칙으로 모아진다. '옛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옛 사람의 마음으로 읽는 것'. 어느 수업에선가 김정희의 <세한도>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학생이 있었다. 작품 속의 집은 그 오른쪽이 보이는데 등근 창문을 통해 본 벽의 두께가 어째서 왼쪽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돼 있는냐는 항의였다.

"그 학생의 문제제기는 분명 옳아요. 하지만 그것은 <세한도>를 눈으로만 본 결과입니다. 추사는 <세한도>에 집을 그리지 않고 집으로 상징되는 자기 자신을 그렸던 것입니다. 옛 그림을 마음으로 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 그림은 단순히 읽고 즐기는 유희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감을 고양시키면서 오늘의 예술혼으로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오씨는 옛 그림의 전통이 오늘날에는 거의 끊겼다고 본다.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그만한 인격과 수양을 갖춘 모델은 오늘날에도 찾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그만큼 착실한 사실 묘사력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옛 선비들은 유희가 아니라 인격수양의 과정으로 그림을 그렸죠."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요즘 세상에서 운문을 던지는 예술혼을 찾는 것은 무망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옛 그림을 되풀이해 읽고 느껴야 하는 참된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 박천홍 기자